



자신이 서있는

항상 배우고, 지금 하는일에

평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아온 많은 날들을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밝은 삶에 도움을 주는데 보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별로 많지 않은 이 사람들 가운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소신껏 일을 하는 숨은 일꾼들도 있다.

이중의 한사람인 상주군청 사회과 부녀계장姜聲子씨(40세, 상주시 신봉리 183) 21세의 어린 나이로 보건소에 취직한 이래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녀는 농촌 여성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한 행동실천으로 살아 왔다.

그녀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도 그들의 건강, 특히 자궁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84년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자궁암이었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고통 받으시는 모

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일을 계기로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상주 여성들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姜聲子씨와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와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이었던지도 모른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농촌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주부대학 강좌 시에 그녀는 자궁암 검사의 필요성, 위해 등에 관한 계몽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85년에 처음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주부 대학에 모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단 한번도 자궁암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90%이상이었어요. 무척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자궁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나서 희망자들에게 자궁암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녀의 말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부담은 둘째로 하고라도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농촌의 바쁜 일과를 잠시 접어두고 병원까지 찾아갈 생각을 쉽사리 하지도 못할 뿐아니라 시골의 순박한

위치에서 소신껏 일을 하는 숨은일꾼

최선을 다하는 姜聾子 상주군청 사회과 부녀계장

여성들은 자신의 치부를 남앞에 검사의 명목으로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검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또 한편으론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검사기관을 모색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보건소에서, 검진차로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해주고, 본인이 직접 자궁암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이 건강관리협회와 첫 인연을 맺게 된 동기였죠. '85년도에는 일반병원에서 있었고, 적당한 기관을 모색하다가 건협을 만나게 된 것이 '86년의 일입니다.』 라면서 姜聾子씨는 밝은 웃음을 웃는다.

'86년도부터 건협과 함께 연 2 회씩 실시한 자궁암검사는 이제 매년 1,000명 정도에 가까운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의 주부들을 위해 계속 주부대학과 자궁암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주부들 간의 애로사항을 서로서로도 와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녀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농촌 미혼남녀 결혼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외에도 姜聾子씨는 폐품수집, 무료예식장운영, 취미교실 개설 등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

신혼시절,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 직업전선에 나섰던 姜聾子씨는 막내 시동생이 올해 대학을 졸업한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 만큼 억척스런 살림꾼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자궁암검사의외에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검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내용을 확대시켜볼 계획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주변의 어려움에도 눈을 돌려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강성자씨의 생활지표는 “능력없어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틈틈이 책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할 일은 많고 능력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부군 邊正一씨(45세)와 아이들(현주, 현목)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태한 현대인들이, 姜聾子씨의 노력하면서 사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